

# “90평생 이런 물고기 떼죽음 처음”

### 나주 만봉저수지 폐사 6일째



12일 오전 전남 나주 봉황면 만봉저수지에서 건져올린 폐사 붕어들. 최대 30cm가 넘는 크기의 붕어도 있다.

“90평생을 이곳에서 살았는데 그동안 저수지에서 이런 물고기 떼죽음은 한번도 없었죠. 물고기 집단폐사가 6일째 이어지고 있는 전남 나주 봉황면 만봉

저수지 주변은 12일 오전부터 시끌했다. 몇몇 마을 주민들은 저수지로 나와 수면 위로 떠오른 물고기를 수거했다.

이곳에서 태어나 살고 있다는 90세의 정모씨는 심각한 표정으로 “저수지가 만들어진 이후 물고기가 이렇게 많이 죽어오는 것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만봉2구 이장인 한철호씨는 “처음에는 작은 붕어들이 죽었는데 지금은 최대 40cm에 이르는 대형 붕어들이 죽어서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저수지 관리주체인 농어촌공사가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수거한 폐사 물고기는 300kg이 넘는 것으로 집계했다.

이날 오전에도 저수지 상류 가장자리를 따라 죽은 물고기들이 떠올랐고 수거되지 못한 물고기들은 급속히 부패가 진행 중이다.

### 최대 40cm 붕어도...농어촌공사 300여kg 수거 15일 국과수 검사결과 예정...주민들 생수 요청

현장 조사를 나온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시사 김신환 지사장은 “작년부터 계속 1급수 수질을 유지하는 저수지에서 폐사가 이어져 안타깝다”며 “원인이 나올 때까지 수질검사를 확대해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만봉저수지 떼죽음의 원인을 밝혀줄 국과수의 검사결과는 오는 15일쯤 나올 예정이다.

김신환 지사장은 “나주시가 의뢰한 검사결과가 다음 주 수요일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단 폐사원인이 나올 때까지 폐사한 물고기 사체 수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저수지 인근 마을 주민들은 수질오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

서 지자체에 생수 공급을 긴급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봉저수지 물고기 폐사 사건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무수사 해문스님은 “엄밀히 말하면 3월부터 폐사가 시작됐고 한달째 이어지고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조속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만봉저수지는 총 저수량 241만 6000톤의 비교적 큰 저수지로 수해 농경지 면적이 153ha에 이른다.

상류에 작은 농촌마을 서너곳이 자리하고 있을 뿐 특별한 오염원이 없어 1등급 수질을 유지해 왔지만 지난달부터 원인 모를 물고기 폐사가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강아라 기자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나흘 앞둔 12일 오전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 앞 세월호 침몰 해역에서 유가족들이 헌화하고 있다.

## “6년 전 비극 없었다면 어엿한 스물 넷 청년으로 자랐을텐데...”

### 세월호 사고해역 찾은 유가족들 오열

“아들아! 엄마 아빠 왔다. 보고 싶다.”

12일 오전 전남 진도군 조도면 맹골수도 세월호 침몰 해역. 드넓은 바다에 홀로 떠있는 노란 부표만이 이곳이 6년 전 세월호 침몰장소라는 사실을 알리고 있었다.

부표를 바라보며 저세상으로 떠난 아이들의 이름을 간절히 불러보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4·16가족협의회 유가족 40여명과 일반인유가족협의회 5명, 관련단체 관계자 등 80여명은 이날 오전 7시57분쯤 목포해경전선 부두에서 목포해경 3015함을 타고 출발, 55마일(88.5km) 떨어진 사고해역에 3시간여 만에 도착했다.

4~5m 파도가 치고 초속 14~16m 바람이 불던 6년 전 그 날과 달리 이날 사고해역은 비교적 잔잔했다.

배가 사고해역에 다가서면서 선실에 있던 가족들이 갑판으로 나와 선상추모식을 준비했다.

가족들과 부표 사이 거리는 약 50m. 가족들은 미리 준비한 국화를 한송이씩 들어 부표를 향해 던지며 아이들을 그렸다. 세월호가 인양된 곳을 표시하는 부표는 물결 따라 좌우로 조금씩 흔들릴 뿐이었지만 가족들의 마음은 크게 요동쳤다.

바다로 국화가 한 송이, 두 송이 떨어질 때마다 가족들은 6년 전 차디찬 바다에서 아이들이 겪었을 고통에 괴로워하며 눈물을

흘렸다. 비극이 닥치지 않았다면 24살이 되었을 아이들의 이름을 찾는 부모들의 목소리도 커져만 갔다.

“너무나 보고 싶은 아들이, 엄마 왔다”고 외치면서 “미안하다”고 되뇌는 여성의 손을 남편으로 보이는 채로 잡아가는 등 가족들은 손을 잡거나 등을 토닥이면서 서로를 위로했다.

고 정동수군 아버지 성욱씨는 “매년 찾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진다”며 “침몰 원인조사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채로 시간은 흐르고 (세월호 참사는) 조금씩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지고 있다. 이런 사실이 유가족들을 더욱 힘들게 한다”고 심정을 밝혔다.

가족들의 헌화에 이어 3015함은 기적을 5초 동안 울려 사망자 299명과 실종자 5명을 기렸고, 3015함장 등 해경들 역시 국화를 바다에 던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다.

이날 선상 추모식은 35분 가량 이어졌다. “힘드신 줄 알지만 이제는 돌아갈 시간입니다.”

3015함은 세월호의 흔적 탓인지 ‘호’자가 지워져버린 부표를 한 바퀴 돈 뒤 목포해경전선부두로 뱃머리를 돌렸다.

갑판을 쉽게 떠나지 못하던 한 유가족은 “내년 7주기 전에는 세월호의 침몰원인이 밝혀져 아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짧게 답한 뒤 선실로 몸을 옮겼다.

진도=조성용 기자

## 코로나19 영향?...광주 화재 8.7%↓, 하루 평균 2.2건

### 광주소방본부 1분기 분석...담배 꽂초 원인 '1위'

### 구조 35.29건·구급 159.5건 출동...50대 최다

광주에서 올해 하루 평균 2.2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 1분기 광주지역 화재·구조·구급 출동을 분석한 결과, 화재와 구급출동은 줄어든 반면 구조출동은 늘어났다.

화재는 1~3월 200건이 발생해 하루 평균 2.2건이었다. 전년 동기(219건) 대비 8.68% 줄고 8명의 인명피해와 7억10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구조(생활안전 포함)는 하루 평균 30.4건(총 2762건)으로 전년 2672건 대비 3.4% 늘었다. 구급출동은 하루 평균 159.5건(총 1만4512건)으로 전년 1만5501건 대비 6.4% 감소했다. 하루 평균 113.6명을 병원으로 이송한 것으로 집계됐다.

화재 발생 원인별로는 부주의

로 인한 화재가 56.5%(113건)으로 가장 많고 전기 21%(42건), 기계 10.5%(21건), 원인 미상 5%(10건)였다.

부주의 화재를 유형별로 보면, 담배꽂초 방치가 31.9%(3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쓰레기 소각 17.7%(20건), 음식물 조리 14.2%(16건), 기타 11.5%(13건) 순이다.

화재발생 장소는 비주거 시설에서 34%(68건), 주거 시설 34%(68건), 기타 야외 21.5%(43건), 자동차 7.5%(15건), 임야 3%(6건) 순으로 발생했다.

구조처리 건수는 2762건으로 집계됐다. 안전조치 755건(27.3%), 화재 490건(17.8%), 잠금장치개방 351건(12.7%), 동물포획 342건(12.3%), 교통사고 312건(11.2%) 순이다. 지난해보다 교통사고, 동물포획 등의 구

조건수가 증가하면서 전체 구조건수가 늘었다.

특히 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분야인 동물포획 활동 실적은 342건으로 전년보다 40.2%(98건)가 증가했고 그 중 개 포획이 235건으로 전년보다 38.2%(65건) 늘었다.

구급출동은 질병(통증, 의식저하 등)이 6928명(6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고 부상(추락, 낙상 등) 2005명(19.4%), 교통사고 1019명(9.9%) 순이었다.

연령 층은 50대가 1773명(17.2%)으로 가장 많았으며, 60대가 1723명(16.7%), 70대 1670명(16.2%)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택 시 구조구급과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외출이 줄어들면서 화재와 구급출동은 줄고 가정이나 사무실 등 실내에서의 안전조치 등 구조출동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신속한 출동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형택 기자

## 합평 사전투표서 교통편 제공하던男 단속 피하다 전남선관위 직원 ‘폭행’

### 전치 2주 상해...검찰 고발

전남도선관위 사정투표소 단속과정에서 차량으로 선관위 단속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남성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10일 오전 10시10분쯤 합평군 순분면 사전투표소에서 선관위 선거인에게 교통편의 제공행위가 있음을 인지하고 혐의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거부하고 자신의 차량으로 선관위 직원을 밀치면서 달아난 혐의다.

이 과정에서 단속직원은 차량에 밀쳐 끌려간 충격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선관위는 당시 촬영된 영상을 통해 해당 차량의 차주를 가해자로 지목하고 고발 조치했다.

전남선관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폭행에 이르는 행위는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평=김광춘 기자



**해양치유완도**  
Marine Healthcare Wando

해양치유산업의 중심지 완도!



**2021완도국제  
해조류박람회**  
Wando International Seaweeds Exhibition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

**치유의 바다,  
바닷말이 여는 희망의 미래**

**2021. 4. 23. ~ 5. 16. (24일간)**

완도해변공원 일원



